

# 이stanbul의 하기아 성소피아 대성당



튀르키예(터키)는 호기심의 나라였다. 역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서양이 만나는 곳. 가는 곳마다 로마와 기독교의 유적이 남아 마치 이스라엘과 로마가 합쳐진 곳 같았다. 기독교 유적이 즐비해서 가톨릭 신자로서 더욱이 애착이 가는 역사 깊은 나라였다.

보스포루스 해협을 가운데에 두고 아시아와 유럽 양 대륙에 걸쳐 있는 터키의 옛 수도 이스탄불은 유럽과 서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도시다. 동로마 제국 시대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렸으며 오스만제국 때까지 수도로 정해졌다. 1930년 정식으로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되었다.

4세기, 1000년동안 번창하던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되었다. 5세기에 서로마제국이 외적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모든 로마문명은 동로마제국으로 이동하였다. 그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로 (현 이스탄불) 옮기면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라는 역사적 위치를 갖게 되고 이때 건축된 하기아 소피아 대성당은 동방 기독교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다. 537년 지어진 이 성당은 그후 천년 가까이



현재 모스크로 사용되는 성 소피아 대성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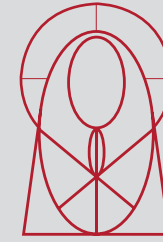
동로마 제국의 교회를 관할하며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총본산이었다가 15세기 오스만제국이 이스탄불을 점령한 후에 약 500여년 동안 모스크로 사용되었다. 근래들어 잠시 박물관으로 쓰이긴 했으나 현재는 하기아 소피아 그랜드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다.

화려했던 기독교 상징물과 금 모자이크는 이슬람을 상징하는 글자판으로 덮였고 회랑의 프레스코화는 떨어지거나 빛 바랜 일부의 모습만 남아 화려했던 옛 소피아 대성당의 모습을 어렵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없이 넘나드는 참배객과 관광객들의 발길로 돌 문턱마저 닳아 없어질 정도로 그 위세는 대단하다. 모스크의 실내는 넓은 광장 같은 형태로 모든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이제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바치고 있다.

하기아 소피아 성당의 돔은 그 혁신적인 건축 방식과 모습으로 많은 건축가들과 미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불어 넣었다. 돔과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천국에 온 듯한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는 찬사를 받았다.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성당이었고, 스페인에 세비아 대성당이 들어서기 전까지 약 1,000여년 간 이 명예를 갖고 있었던 비잔틴 문화의 최고 걸작이다.

사진과 글 변태용 요셉

연중  
제 28주일  
2023년  
10월 15일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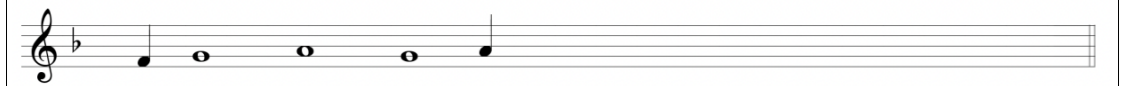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마태오22,9

###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이사야서25,6-10  
# 화답송 시편 23(22),1-3 7,3 11-4,5,6(◎ 6 11)



후렴·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4,12-14,19-20

# 복음 환호송 에페 1,17-18 참조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름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음 마태오22,1-14

# 성기번호 입당 51 봉헌 220, 510 성체 175, 183 파견 6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 이공주(베드로) - 가족, 백상현(요셉) 가족, 요셉회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최규승 - 가족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서경희(피아) - 김순옥(율리아)
- 이보현(요안나) - 김귀옥(실비아)
- 오현주(요한) - 이대우(베드로) 가족
- 임경자(막달레나, 방상호(요한) - 임영자(안나)
- 방영숙(로사), 방진숙(테레사) - 임영자(안나)
- 성낙철(안드레아), 성경숙(아가다) 가정 - 이막동(아네스)
- 이정옥(지타) - 노스에디슨 구역
- 변태용(요셉) 사진전 축하 - 요셉회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65명)..... \$1,401
- 교무금.....\$1,330
  - 박락준(10) 우영인(9-10) 김순옥(7-9)
  - 오경선(9-10) 백상현(10)
- 감사헌금 (김영필) .....\$200

**이튼타운 성당 운영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

- 일시: 10월 22일(주일) 오전 10시 30분미사 후
- 장소 : Spring Meadow Golf Course
- 골프 후 친교실에서 저녁식사 예정
- 참가신청/도네이션 문의: 대건회장 전화수 형제님 (732-801-8774)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3.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4. 바닥 청소
5.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 단속 확인 바랍니다.

**Rosary Altar Society 주관**

**Gertrude Hawk 크리스마스 캔디 세일**

- 성당 입구에 비치된 주문서를 사무장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 주문 마감: 10월 29일(주일)까지
- 문의: 사무실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아)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 곽 율리안나 방진숙(테레사)
- 정수지(아네스) 송희수(글라라)

**2차 헌금**

- 10월 22일: World Mission Sunday (교황님 선교 사업 지원)
- 2023 세계 선교의 날 교황님 메세지는 “불타는 마음, 움직이는 발 (Hearts on fire, feet on the move)” 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주님의 평화와 구원의 길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자고 교황님께서는 권고하십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 일시: 11월 1일(수)
- 오전 9시 영어 미사 (경당)
- 저녁 7시 한국어/영어 미사 (성당)

**위령의 날 미사**

- 일시: 11월 2일(목) 오전 9시, 경당
-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봉투에 지향자 및 봉헌자 성함을 기입하시어 사무장에게 주시면 됩니다.

**친교 봉사 일정**

- 10/15사우스브런스윅 • 11/19썸머셋 • 12/17 에디슨
- 오늘 미사 후 사우스브런스윅에서 마련한 음식으로 모든 교우분들께서는 서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10월 목주 기도 성월을 맞아 둘째 주일부터 다음 지향으로 미사 30분 전 목주 기도를 바칩니다.**

- 10월15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 10월 22일: 모든 아픈 이들을 위하여
- 10월 29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10월 사우스브런스윅 구역 빵과 포도주 봉헌자**

- 10/15 손영수, 손흥희 • 10/22 박미경, 김태경
- 10/29 정진오 유미선

**기획분과회의**

- 일시 및 장소:10월 15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피스브릿지 구역 모임 (구역장: 최현지 안토니아)**

- 일시: 10월 15일(주일) 미사 후
- 장소: 최현지(안토니아) 자매님 댁

**전례분과회의**

- 일시 및 장소: 10월 15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대상: 전례분과 단체장 (독서단, 제대회, 성가단, 복사단)

**먼로 구역 모임 (구역장: 민규란 엘리자벳)**

- 일시 및 장소: 10월 2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이스트브런스윅 구역 모임 (구역장: 오은주 로사)**

- 일시 및 장소: 10월 2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이나시오 영성 프로그램**

- 이나시오 영성에 의한 성경 묵상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뜻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주최 : NY KCLC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 [1] 영성 청년 10주 프로그램 (20-30대, 한국어와 영어)
- 시작: 10월 15일 zoom (김수완 세실리아 267-372-0972)
- [2] 지원기 22주 프로그램
- 시작: 10월 16일(화) (허정 아나스타시아 732-718-4569)

**제1독서: 이사야서25,6-10ㄱ**

만군의 주님께서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겨레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 버리시리라. 주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 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4,12-14,19-20**

형제 여러분,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나의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께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태오22,1-14**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 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is given to us.